



▶ (주)체리부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산학협동 조인식

▶ (주)하림
월드컵 응원 1,000여명 직원 한자리

▶ (주)체리부로
전화번호 변경 안내

▶ (주)체리부로
홈페이지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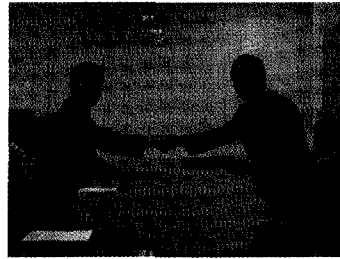
▶ (주)육성코리아
「KS A 9001:2001」 「ISO 9001:2000」인증 획득

▶ (주)마니커
영남권 사업 집중 확대

(주)체리부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산학협동 조인식

(주)체리부로(대표 김인식 www.cherrybro.com)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모인필 교수팀과 「육계가검물 진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산학협력 차원에서 진료사업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체리부로는 6월 14일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산학협동 조인식을 가졌

다.

이번 협약에 의하면 체리부로는 향후 1년간 진단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경비를 충북대 수의과대학 모인필 교수팀에 지원하고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체리부로 협력농가에 대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 진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를 중점 수행하게 된다.

체리부로는 이번 체결을 계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협력농가에서의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육계에 흔히 발생하는 ND, IB 등 바이러스성 질병과 기타 세균성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신선육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체리부로는 향후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ND 등 주요 양계질병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질병발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육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대 수의과대학의 모인필 교수는 서울대와 조지아대학에서 수의병리학을 전공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연구관 및 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하림

월드컵 응원 1,000여명 직원 한자리

(주)하림(대표 김홍국 www.halim.com)이 한국의 뜨거운 월드컵 열기를 한자리에 모았다.

한·미전이 있었던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전국 1,000여명의 (주)하림 영업, 판촉사원들은 잠시 업무를 접고 한자리에 모여 응원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부터 대전 유성관광호텔 컨벤션홀에 모여들기 시작한 하림의 직원들은 회사에서 특별 제작한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모두 붉은악마가 됐다.

(주)하림은 월드컵에 대한 직원들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월드컵을 맞아 출시한 ‘월드컵 그릴왕’에 대한 이벤트를 겸해 이번 한·미전 단체관람을 실시하게 됐다.

‘월드컵 그릴왕’은 (주)하림이 월드컵 이미지를 부각시킨 포장지와 브랜드를 채용, 출시한 제품으로 닭날개를 오븐에 구워 가공해 튀김제품과 달리 지방이 적어 비만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주)하림은 미국의 풋볼 경기장에서 캔맥주와 함께 닭날개를 먹는 것이 보편화돼 있는 것처럼 월드컵 축구경기장에서도 하림의 ‘월드컵 그릴왕’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주)체리부로

전화번호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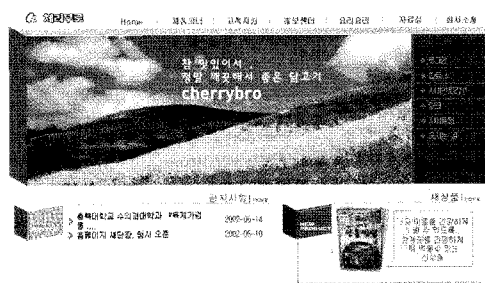
(주)체리부로의 전화번호가 6월 1일자로 변경됐다. 변경된 대표번호는 (043)530-3200이다.

이번 조치는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부 전화의 직통 전화가 각 부서별, 담당자별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체리부로는 당분간 변경전의 전화번호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주)체리부로

홈페이지 단장



체리부로는 6월 6일 홈페이지를 새단장하고, 1차로 임시 오픈했다.

새롭게 재편된 홈페이지는 제품 코너를 강화하여 신제품을 다채롭게 소개하고, 회사 소개도 현재의 회사 규모와 이미지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했다. 또한 주부들의 전용공간으로 요리요리 코너를 마련, 닭고기 요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삽입했다.

체리부로는 홈페이지의 개편 필요에 따라 긴급히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보완 수정하여 6월말 보다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 홈페이지 주소 : www.cherrybro.com

(주)육성코리아

「KS A 9001:2001」 「ISO 9001:2000」인증 획득

육성코리아(대표 양희용 www.yuksung.co.kr)는 시스템기술인증원으로부터 6월 1일자로 닭 도축 및 보관, 운반에 대해 「KS A 9001:2001」 「ISO 9001:2000」 인증서를 부여받았다. 이번 인증서는 2005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주)마니커

영남권 사업 집중 확대



닭고기 제품 생산업체인 (주)마니커 (대표 한형석

www.maniker.co.kr)가 전국적인 영업망 확대 및 브랜드마케팅 강화를 위해 영남시장 공략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5월 22일 (주)마니커는 대구 파크호텔에서 영남본부 출범식을 갖고 대구를 중심으로 영남권 사업확장에 나섰다.

(주)마니커가 영남지역 사업확장에 나선 것은 신선도와 품질관리가 중요한 식품사업의 특성상 현지생산, 현지판매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영남본부 설립 첫해인 올해 영남본

부에서 총 89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는 2003년에는 241억, 2004년에는 402억, 2005년에는 1,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니커의 전체 매출액이 올해 1500억에서 연간 500억 가량의 증가폭을 나타내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영남본부의 매출액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총 매출액이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05년에는 영남본부의 매출액이 1,100억원을 돌파,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영남본부 설립과 함께 생산규모가 대폭 확대되며 또한 영남본부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을 이용, 대일·대미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방침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영남사업본부는 원료 및 가공을 현지 본부를 통해서 생산 판매하며, 마케팅·생산부문의 고급인력들을 지역 내에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사육농가의 경우 올해 50여개의 현지사육농가가 운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05년에는 280개 농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마니커는 농가소득 향상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마니커 한형석 사장은 “영·호남 지역의 대리점 및 유통을 총괄, 운영하게 되는 영남사업본부는 도계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다”면서 “마니커는 서울 및 수도권 사업본부에 이어 영남사업본부를 개설함에 따라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게 됐으며, 완벽한 현지계열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마니커는 이번 영남사업본부 발족을 계기로 대규모의 생산규모 확대와 함께 2005년까지 연 3,000억원의 매출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C